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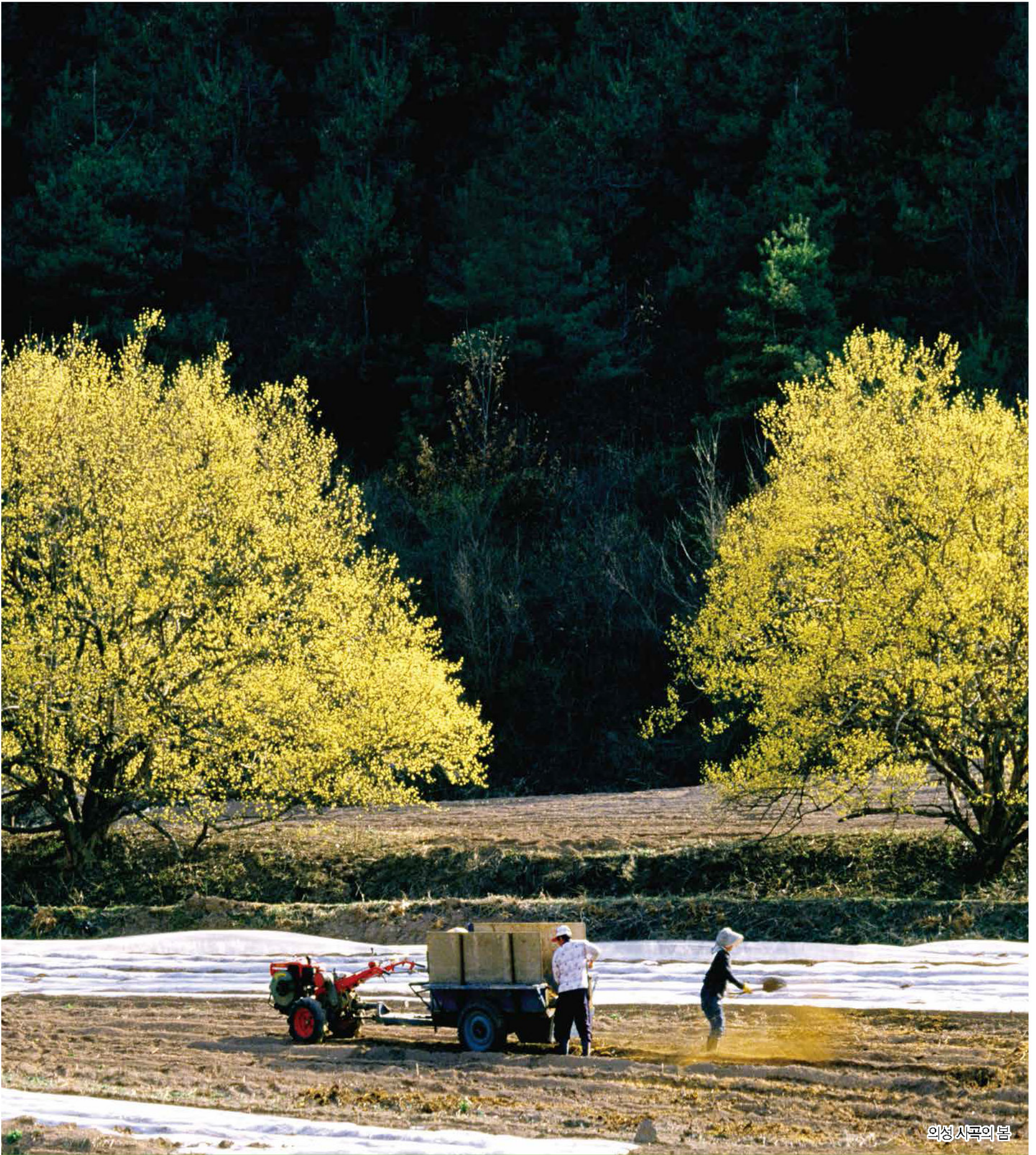


제 88 호

경상북도 의회소식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http://council.gb.go.kr> 2015. 3.



의성 시곡의 봄

지면안내

- 의정소식 / 의정만평 2~3면
제275회 임시회 개회사 / 장대진 경상북도의회회장
제275회 임시회 개회, 의정소식
- 인물포커스 / 상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4면
이영식 교육위원장,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특별기고 5면
김용창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 진정한 형평성과
규제완화의 의미
- 상임위원회 활동 6~13면
의회운영 · 기획경제 · 행정보건복지 · 문화환경 · 농수산
· 건설소방 · 교육 · 예산결산 · 윤리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 5분 자유발언 14면
5분 자유발언 : 박용선 · 광경호 · 구자근 · 조현일 ·
김명호 의원
최한나 변호사 : 주민의 권리찾기 공공갈등의 해결사
주민투표제도
-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건강칼럼 15면

제275회 임시회 개회사

신도청 역사적 개청,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 우뚝 설 수 있는 좋은 기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를 300만 도민과 함께 청양의 긍정 에너지로 힘차게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제10대 도의원 모두는 오직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상생협력으로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한 축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신도청의 역사적인 개청으로 경상북도가 우리나라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의정목표로 삼아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살기 좋은 경북 건설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국회, 중앙정치 등이 참여하는 전국민 순회토론회 개최, 전국 시민단체와 연대한 서명운동,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의회의 의정활동 추진 계획에 대하여 도민들께서도 강력한 에너지를 모아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는 도정과 교육행정에서도 큰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국비예산 11조원 확보, 투자유치 4조원, 새마을 세계화 추진과 수학능력 시험 만점 2명 배출, 시도교육행정 평가 2년 연속 종합 1위,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상위권 입상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신 도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금

년에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신도청의 성공적인 개청과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국제행사의 빈틈없는 준비와 개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기업 피해 최소화,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교육행정에 있어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와 학력신장과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도청으로 이전하는 도청 공무원들의 정주여건 확보에도 많

은 노력을 기울여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는 2015년도 집행기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연계된 업무추진 계획이 잘되었는지 살펴보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 활동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300만 도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 26.

경상북도의회위원장 장대진

제275회 임시회

경상북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회 2015년 업무보고, 현지 확인 및 민생관련 각종 안전 심사

경상북도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 경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도정 각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과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과 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첫날인 1월 26일에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경북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둘째날인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경북도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에 이어 각 실국별 2015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각종 안전을 심사했다.

2월 6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전 중에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 7건은 원안대로 처리했고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여 처리했다.



의정만평

희망찬 2015년! 알찬 경북의 살림살이!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 장대진 기획·편집 | 장영호, 임필규
편집인 | 정병윤 발행처 |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경북도의회-전남도의회, 상생발전 위해 손잡다

경상북도의회는 2월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양 도의회가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로서 지방자치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공동합의문 내용으로 ▶지역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동반자 역할 ▶국민통합 정치선도해 양 도민의 이해증진과 교류협력 사업 적극 추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협력 ▶각

종 선거시 지역감정 조장 행위 일체 금지 ▶상호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합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 체결하기로 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만남은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차원에서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방자치발전과 상생과제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동반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 강행, 임중경고·강력규탄

경상북도의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전정에서 장대진 의장과 이정호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강행한 '죽도의 날'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규탄성명서에서 일본은 '죽도의 날 조례' 폐지와 독도편입 취소, 독도 영유권 주장과 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 과거 침략행위와 반인륜적 만행의 역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 및 미래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



경북도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높여 정책연구 활성화 위해 외부전문가 4명 위촉

경상북도의회는 1월 5일 외부전문가 4명을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도기욱) 위원으로 위촉했다.

문화산업정책연구회에 위촉된 이정옥 교수, 미래농수산연구회에 영남대

이상호 교수, 미래창조연구회에 경일대 최근열 교수, 산림정책연구회에 대구한의대 임원현 교수를 각각 위촉해 앞으로 정책연구위원이자 의원연구단체 외부전문가로 참여하여 도의회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



경북도의회, 지역경제 살리기 장보기 행사

경상북도의회는 2월 12일 설을 앞두고 장대진 의장을 비롯하여 이영식·김명호·김인중·김위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50여 명과 함께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 전자상거래 증가 및 대형유통업체 확

산 등에 의한 전통시장 이용 고객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근심을 덜어 주기 위해 열렸다.

장대진 의장은 장보기 행사 등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이용 생활화와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등을 통해 민생안정, 서민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경북도의원 부인 모임 '초록회', 설맞이 지역특산물 바자회 열어

경상북도의회의원 부인 모임인 초록회(회장 손경숙)가 2월 6일 경상북도의회 마당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설맞이 지역특산물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바자회는 경북통상과 하나로마트 등도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졌으며 경북도청 공무원들도 적극 호응하여 많은 판매량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대진 의장의 부인인 손경숙 초록회장은 초록회 회원들이 보내 23개 시

군에 어떤 특산물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의원 부인들이 다른 지역 특산품을 제대로 공부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등에 쓴다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에 회원들이 적극 찬성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초록회는 그동안 한 달에 2만 원씩 낸 회비로 명절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불우이웃돕기 또는 각종 사회시설 방문 때에 위문품을 마련하는 경비로 충당해왔다. ☞



상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집중 인터뷰

현장의견 청취 요구,
위원간 결집으로 생산적 상임위 운영

이영식 교육위원장(안동 3)

이영식 (안동 3) 교육위원장은 제9대에서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및 도청이전지원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재선 의원으로서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한 남다른 열정을 인정받아 제10대 도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과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성 향상을 통해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에 중점을 두며 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서 견제와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교육수요자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참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제10대 교육위원회는 학생자살이나 학업 중단의 원인이 되는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한 교권침해와 함께 고민해야 할 학생 인권 문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비정규직 해소 문제, 학생 안전사고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반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제275회 임시회에서는 자립형사립고인 김천고등학교와 경북교육

연수원을 방문하였으며, 특히 김천 고등학교에서는 학력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특색사업과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천 고등학교의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다른 학교에도 많이 전파되어 경북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밝혔다. 또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교육연수원에 선정된 경북교육연수원에서는 동계방학 중 집중된 교원연수 프로그램과 전국 우수사례로 뽑힌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다.

이영식 위원장은 “교육위원회는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로 뛰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교육위원들이 언제나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생산적 상임위 운영으로 경북교육 발전에 한 획을 긋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복지실현을 위한 건전재정 기반구축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포항 1)

예산은 모든 시책과 사업의 근간이자, 도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되기 때문에 흔히 인체에 비교하여 혈액과 같다고 한다. 이처럼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도청과 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곳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집행부의 선심성, 낭비성 사업을 감시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창화(포항 1) 위원장을 인터뷰 했다.

재선 도의원인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9대 도의회에서 독도수호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농수산위원, 서민경제특별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의정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 소박한 시골 아저씨 같은 외모와는 달리 논리가 정연하고 소신이 뚜렷할 뿐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노력하고 공부하는 연구파 중진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산심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자, 300만 도민이 도의원들에게 위임한 막중한 책무입니다.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도민의 삶의 질 향

상과 지역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제10대 첫 예결위원장으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2013회계연도 결산, 2014년도 제2회 추경, 2015년도 본예산을 심사·의결하였고, 예산·결산 심사기법 습득을 위한 연찬회를 갖는 한편, 도내 주요 사업장과 교육현장에 대한 현지확인파타시도 비교견학 등을 통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수행했다.

금년 6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한창화 위원장은 오는 4월로 예상되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심사와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활동 방향에 대해서 최근 경기부진과 세수부족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공공성과 효율성의 기본 원칙 아래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성립된 예산이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도민들의 행복한 살림살이에 기여하는 예결위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

진정한 형평성과 규제완화의 의미

김용창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지방에서는 진정한 형평성과 규제완화의 의미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수도권 규제완화가 균등한 지역경제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면 지방에서는 적극 지지하고 협조하여 정부정책에 힘을 보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 아쉽게도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 각종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현재에도 수도권과 밀착이 심각하고 지방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전체인구의 50%, 1,000대 기업의 72%, 상장사 자본 총액의 82%, 기업연구소의 65%, 기업연구소 연구인력의 71%가 몰려있어 경제규모와 인구면에서 초과밀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3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715개사(본사 기준)가 위치하고 있고 총 매출액 중 85.5%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2003년 LG디스플레이의 파주 이전을 비롯한 포스코 자회사의 수도권 이전 등 지방에서는 대기업의 수도권과 해외이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혹자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투자가 더 늘어나 경제가 더 성장하면 지방으로 파급되어 지방경제도 살아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느냐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지방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이

먼저나 수도권 규제완화가 먼저나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인력, R&D 및 각종 인프라 등 모든 조건이 지방에 비해 우위에 있는 수도권에 규제를 풀고 지방에서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자금, 세제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에 비해 절대우위에 있는 수도권에 대한 투자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임이 자명하다.

지방 산업단지에서는 기업의 투자여부에 따라 발전속도가 엄청나게 차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가

선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단기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증설을 더욱 키워준다면 현재에도 비대해될 만큼 비대해진 수도권의 몸집을 더욱 키워 몇 년 후에는 또다시 수도권 규제를 부활시켜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조차도 과밀화와 부동산투기를 부추겨 역효과만 남긴 채 저성장의 긴 터널을 헤매게 되어 국가경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방특화산

다.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기업연구소는 총 32,167개소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 20,872개소가 위치해 64.9%를 차지하며 경상북도에는 1,195개소로 3.7%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 수는 302,486명으로 이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215,147명이 근무하고 있어 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에는 9,761명으로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구원 학위별로는 박사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70%(경북 2.9%), 석사 72.0%(경북 2.5%), 학사 71.0%(경북 3.5%), 전문학사 70.4%(경북 3.8%)를 각각 차지하여 연구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인력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연구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 기업 연구소 연구원의 근로의욕고취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방식(법인세액·소득세액의 10% 부과)에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세율 및 공제·감면을 별도로 운영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며 법인의 투자, 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되어 기업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분 역시 지방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소로 친기업 세제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국가 균형발전, 실질적 형평성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며, 이제는 지방에서 기업하는 기업인들이 기업할 맛 난다는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해 본다. 🍀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력 수급과 입지 조성의 용이성, 주변 환경에 따른 시너지효과 창출여부 등이다. 인력 중에서도 연구 인력을 얼마나 수월하게 채용할 수 있는지가 기업의 10년 뒤 20년 뒤를 보장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 문화, 의료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기업투자가 더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국내 1천대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71.5%나 소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구미지역에는 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있고 국내 수출비의 최대 10.9%까지 차지했었지만 생산기지에 불과해 최근 베트남, 중국 등으로 해외생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위협까지 더해져 지방공동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종합해볼 때 정부에서는 무엇을

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의료 등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도권 인구를 분산해야 하며,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지방세 공제확대 등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기업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특히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의 R&D 세액공제 금액은 80% 이상이 서울 및 경기도 소재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실질적 수혜는 거의 수도권기업이 받고 있으므로 지방기업에 대한 또 는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R&D투자를 늘릴 경우 세액공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방기업 연구소 연구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

의회운영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와 함께 새해 첫 의정활동 시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2015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5년도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제276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올해 도의회 운영방향인 '도민에게 편한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경북도의회가 선진의 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특히, 금년은 개도 700주년을 맞아 신 도청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써 신청사 이전 및 개원준비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집행부 및 의회사무처에 대한 철저한 주문을 당부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와의 상생·협력 합의로 영호남 교류, 화합의 물꼬 터”

의장단 상호 교환 방문, 영호남 상생발전 특위구성, 도민의 날 등 주요 행사시 상호 초청방문 합의

의회운영위원회 홍진규 위원장은 지난 2월 10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한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회운영위원장 일행을 맞이하고, 그 동안 양지역 의회에서 논의한 영·호남 교류협력 사업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 협의 하였다.

양 도 의회차원에서 시작된 영·호남 교류협력 사업은 지난해 11월 19일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의 전남도의회 첫 방문이 이루어진 이후 12월 26~27일 양일간 전남지역에서의 운영위원 연찬회 개최 및 양 의회 운영위원회간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3~4차례의 상호 방문과 협의를 하면서 상생·협력의 기틀을 다져 왔었다.

이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의 협의에서는 향후 교류방향과 틀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과 양측 의장단 상호 교환 방문, 영호남 상생발전 특위구성, 각 상임위원회 연찬회의 상호 교환 실시, 도민의 날 등 양측 주요행사시 상호 초청방문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금년도 9~10월경 이전할 계획인 경상북도의회의 안동지역 신청사 개청식에 대한 전남도의회 의장단의 파견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협의 이후 첫 실현 계획으로 지난 2월 24일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 일행의 경북도의회 공식방문에서 양 지역 의회 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 채택 및 박정희대통령 생가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오는 3월 10일 답방 형태로 경상북도의회 의장단 일행의 전라남도의회 방문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 체결 등 교류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양 지역 의회간의 교류를 계기로 영호남의 다양한 계층간 활발한 교류와 상생협력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 2015년 주요업무보고
2. 영호남 상생발전 협의
3. 전국운영위원 합동연찬회(제주도)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및 전국운영위원 합동 연찬회 제주도에서 열려

의회운영위원회 홍진규 위원장은 2월 25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제4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위한 제주선언문 등 6건의 안건이 채택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홍진규 운영위원장의 제안사항으로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건도 함께 채택되어 차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한편 2월 26~27일에는 전국시·도의회운영

위원장 협의회에 이어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을 포함, 전국 17개시·도의회 운영위원 및 수행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가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합동연찬회가 홍진규 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한 가운데 같은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이번 합동 연찬회에서는 전 총남도지사이자 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의 지방자치발전과 과제에 대한 특별강의와 함께 전국 운영위원들간의 의견교환 및 상호 친목을 다지는 화합의 행사가 이루어졌다. 🍷

기획경제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2014년 소관 부서 주요업무보고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275회 임시회 기간중인 1월 26일~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본청에서 제출한 2건의 안전 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는 실라리안 업체, 투자유치 서울센터, 서울지사, 기업인라운지 등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먼저, 안전심사에서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등 2건의 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신



1. 실라리안 업체인 토리식품 방문
2. 실라리안 업체인 송광매원 방문
3. 서울지사서 업무보고 받은 후 애로사항 청취

양질의 일자리는 양질의 투자유치에서부터 시작 “생색내기용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도민의 동의 못 받아” 지적도

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태식(구미) 의원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북천연염색연구원을 경북테크노파크에 통합하는 구조조정이 진행

실라리안 3개 업체 애로 청취, 인천시 투자유치 벤치마킹 등 현지확인

되고 있지만 조그만 기관 몇 개를 통합하는 생색내기용 구조 조정은 도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철국 중리지

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공동구를 통한 지중화 사업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위한(비례)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지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더욱더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발맞춰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북북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두욱(포항) 의원은 “산하기관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통합할 가능한지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1월 29일~31일까지 2박 3일간 중소기업 운영실태 점검과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먼저, 실라리안 업체 3곳을 방문하여 경북도의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서울센터, 서울지사를 방문하여 인천시의 투자유치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경상북도의 투자유치 실태와 투자유치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는 양질의 투자유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도민들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투자유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자유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



제275회 임시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활동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마련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할 것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양일간 제 27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첫째날,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복지건강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김봉교 의원(구미)은 공무원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도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태림 의원(의성)은 장기교육과정과 신규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평가 결과의 환류 조치가 미흡하다며, 평가 결과가 도정에 접목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호 의원(포항)은 도립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능한 의사채용과 제도개선 등 경영컨설팅을 통해 의료수익 증대 노력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감독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도민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수립한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지난해 포항·안동의료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한 사안인 경영혁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둘째날, 경북도립대학교, 인재개발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 안전행정국에 대한 업무보



도민이 보다 행복한 경북을 위해 의정활동 역량 결집

고에서 최태림 의원(의성)은 대학 평가지표 중 중도탈락률 목표치 8.0%는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5.0% 이내로 낮추는 노력과 함께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 강구와 학생 수 유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인중 의원(비례대표)은 경북도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지수 상향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과 급년에 처음 시행하는 여성일자리사관학교에 대해 관심과 성과 창출을 기대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여성관련 민간단체가 우

후 죽순으로 난립하고 있고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여성일자리사관학교 같은 기관이 북부지역에는 소외되어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최근 이슈화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보고가 부실하며 차별화된 시책이 없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서 반영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향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경북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군당 3억원으로 사업비 투입대비 사업 효과성의 의문을 지적했다.

조례안 심사

이외에도 도청 소재지 이전일 이전에 도청이전 준비 등을 위하여 신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상정한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한편,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은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지난해의 의정활동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마련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도민이 보다 더 행복한 경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 도립포항의료원 현장방문
3. (사)경상북도 장애인부모회와의 간담회

문화환경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1



2



3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엑스포 · 경북관광공사)
2.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현지방문
3. 경주 월성발굴 현장(신라왕경 복원 · 정비사업)

소관 부서인 3개 실원국 및 산하기관 · 단체 2015년도 업무 보고 및 주요 사업현장 방문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제275회 임시회 기간중인 1월 27일(화)부터 2월 2일(월)까지 소관 부서인 본청의 3개 실원국(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산하기관 단체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금년도 업무 보고에서는 산하기관 · 단체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업무 보고를 듣고 바람직한 방향 등을 논의하고,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세계불포럼대회 회의 장소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건립 현장과 신라왕경유적 복원 · 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차질없는 준비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1월 27일 열린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보고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안동 '제비원성주풀이'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검토, 사방공원의 정상적 운영 방안, '작은 도서관' 사업 확대, '마이스터 아카데미'와 '과학교육 서포터즈'의 활성화 등을 지적하고, 제7차 세계불포럼대회와 경주실�크로드 문화대

중국 관광객 유치 · 문화자원 마케팅 · 산림자원 보호 등 강조 및 국제적 행사 준비 철저 당부

축전 등과 같은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한혜련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원안 · 의결했다.

이어 1월 28일과 2월 2일 이틀간 안동과 경산 현지에서 이루어진 3개 체육회, 문화엑스포, 한국국학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경북관광공사 등 7개 기관 · 단체의 금년도 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에서는 경북도의 만리장성 프로젝트와 연계한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 및 23개 시군과 연계한 관광마케팅 사업 개발, U-대회 잉여금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기초단체장의 생활체육회장 겸직 문제, 도내 우수선수의 타 지역 유출 방지책 마련 등을 지적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국학진흥원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지역 정체성의 확산과 문화자산의 마케팅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1월 28일에는 세계불포럼대회 회의

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건립 현장을 찾아 성공적 행사 개최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9,45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 · 정비사업지중 하나인 월성 발굴현장 및 월정교 복원 현장을 둘러보고 차질없는 사업추진 등을 당부했다.

비회기중 주요 시책 · 사업현장 실태점검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비회기중인 지난 1월 15일, 16일 이틀간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영주무섬마을, 봉화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현장 등 도내 주요시책 및 사업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 점검 · 확인과 추진현황 등을 살폈다.

위원회는 현지 확인에서 관광객유치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백두대간 수목원이 세계최고가 될 수 있도록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

농수산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FTA대응 및 창조농어업 실현 위해 청년리더 양성정책 발굴해야, 지역 농어촌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필요

집행부의 새해 첫 업무보고 받아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75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 26일과 27일, 'FTA 대응 경북농어업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보고와 2015년도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농수산위원들은 농가 희망량에 못 미치는 정부 보급종자의 원활한 공급, 어촌계와 시·군 등 일선 현장 조직과의 소통·교류 강화, 고령인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확대, 해양수산업 분야 과학기술 접목과 어업경영인 교육 강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에찰의 내실화, 이중자망과 통발조업 관련 정책에 지역주민 의견 적극 반영, 최근 엔저현상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 대책, 귀농귀촌인 정착 및 창업 지원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FTA대응 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비

김천·상주시 관내 농산업 시설과 농가들을 방문해서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직접 들어

전·목표 수립보다는 세부전략과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자조금 구성에 대한 농업인의 실질적 참여, 지역별·품목별 세부 대응전략 제시, 한·중 FTA 수산업 분야의 선제적·선도적 대응을 요구했으며, 무엇보다 창조농어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10~20대 우수 인력의 농어업 분야 유인 등 청년리더 양성정책 발굴이 가장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정영길 농수산위원장은 지금 우리 농축산업·해양수산업의 환경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정, 농어촌 인력부족,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획량 감소, 기상이변, 일본의 독도 도발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고, 특히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지속적인 방역노력에도 불구하고 AI와 구제역의 발생으로 축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지역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사명감을 갖고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활발한 현장 의정활동 전개

또한, 농수산위원회는 1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 고행지 지역소득 향상,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사업 등의 현장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김천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김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경북남서부 친환경고행지사과 재배단지, 김천 딸기고설재배단지, 상주시 접목선인장 수출단지, 상주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건립 현장 등 김천시와 상주시 관내 농업현장 및 수상레저 기반 시설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얻은 다양한 현장 지식과 의견들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올 한 해도 농수산위원회는 농축산업 및 해양수산업의 현장에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직접 듣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 김천 딸기고설재배단지 방문
3. 현지확인(김천학교급식지원센터)



2

3

건설소방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1. 2015년도 도청신도시본부 업무보고
2. 고령관내 소화전 점검
3. 선남119안전센터 부지 현장확인

완전개통으로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고,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경산 지인 ↔ 봉곡간 도로 부분개통을 통해 설 명절 동안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으며 앞으로 줄어드는 시기인 만큼 인구·도시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위험도로의 경우 도로등급이 낮은 하위도로일수록 사고가 빈번하나 유지관리 예산은 시군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으며, 또한 품격 높은 경북형 한옥 개발에 있어서는 포스코의 '스틸하우스'를 벤치마킹하여 시공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성주 선남119안전센터”, “고령소방서 소화전 확인 현장 직접 방문”

현지에서 행한 성주소방서·고령소방서 업무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소방본부 인사잡음에 빠른 해결책 주문 도청신도시 추진본부, 신청사 건립 마무리 공사 특별당부

도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도청신도시 조성, 경북 균형발전 형성, 교통불편 최소화, 현실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2015년 소관부서 주요업무보고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제275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 등 대책을 요구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1월 27일 매일신문이 지적한 경북소방본부 인사잡음과 관련해 빠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직원인사는 가급적 연고지 배치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근무할 때 비로소 인사잡음이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의 구조구급차 능력도착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영주 점포화재시 소화전 미작동으로 인한 초기 화재진화 실패 등으로 소방조직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지혜와 역량을 모아 조직을 다잡으라고 경북소방본부장에게 당부했다.

도청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도청신도시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신청사 준공에 따른 성공적인 도청이전, 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마무리, 2단계 개발사업 추진준비, 상업용지 등 토지분양완료, 유관기관단체 신도시 본격

이전, 각급 학교 및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OC 사업예산, 전년대비 23.5% 증가 - 6조 3천여 억원 확보”노고에 감사

지역균형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촉구와 울릉일주도로 조기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하루 빨리 미개통구간의

보고에서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조직확대 필요성, 성주소방서 용벽공사의 문제점, 소화기 안전점검 및 작동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실화, 농촌 농한기 영농교육시 소방안전 교육의 병행 프로그램 개발,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 소화전으로 전면교체, 내구연한 초과 노후 장비의 교체 등을 거론하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어 성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선남119안전센터 건립현장을 방문해 건축설계비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최근 발생한 영주 화재시 소화전 미작동으로 인한 초기진화 실패 사건을 거울삼아, 고령 관내 지상식 소화전 1개소를 불시에 무작위로 찾아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했다. ☞



교육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

2015년 업무보고,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육성'을 위한 추진시책 및 특색사업 보고



유학기제 운영 등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당부했다.

학생 수련원 안전관리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당부

교육위원회는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학년도 입학생 및 재학생이 없는 경주 양남초등학교 상계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야영장'의 명칭을 '학생 수련원'으로 바꾸고,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학생야영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학생야영장이 폐쇄된 지역의 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학생야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등 장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따른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과 수련원 운영에 있어 직영급식이 아닌 위탁급식 운영으로 인한 급식 안전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 전문경력관 정원 2명 증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련지도사 여를 성수기에 많은 학생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채용되는 전문경력관은 학생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 만큼 국가 자격증 소지자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채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원명예퇴직, 영천상고 식품마이스터고 개교, 자유학기제 운영 등 주요 현안 논의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1월 28일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육성'을 위해 여러 추진 시책 및 특색사업을 보고했으며, 특히 교

원명예퇴직, 영천상고 식품마이스터고 개교, 자유학기제 운영,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설립, 학교용지관련 소송 현황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감사내실화를 위해 수박 겉핥기식 감사에 치중되지 않도록 기획(정책) 감사로 전환해 줄 것과 원활한 교원 명예퇴직을 위한 추경 예산 반영,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가흥초 소송 현황, 울릉도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 육성, 자

교육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현장의정 추진

교육위원회는 1월 28일과 29일 김천고등학교 및 경북교육연수원을 현지 방문하여 학생 학력지도 및 교직원 연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들은 김천고등학교에서 학력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대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특히 전국 모집 자립형사립고로서 우수인재 유치로 학교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지역 인재 육성 등 애향심에 대하여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경상북도교육연수원에서는 교육부 주관 전국 교육연수원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연수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프로그램과 질 높은 연수로 명품 경북교육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1. 경북교육연수원(현지확인)
2,3. 김천고등학교(현지확인)

예산결산·윤리·독도수호특별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건전재정운용 및 예산심사 내실화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 일원을 비교견학하면서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신도청시대의 개막과 제10대 도의회 활동이 본격화되는 2015년도 첫 회기를 활용하여 2014년도 예결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정리를 하는 한편, 경기부진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도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2015년도의 건전재정 운용 및 예산심사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



제275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지방의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연찬회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2015년도 윤리특별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새로운 신도청시대의 개막과 함께 제10대 도의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해인 을미년을 맞이하여 전년도 활동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15년도 윤리특별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렸다.

배한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도의원은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지키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찬회를 통해 경북도의회가 지방의원 청렴도 제고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깨끗한 지방의회와 클린 경북을 실현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

제275회 임시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

2015년도 독도 관련 업무보고 받고 독도수호의지 다져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1월 26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 소관인 2015년도 독도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장은 인사말에서 도의회는 지난해 8월 6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014년판 방위백서에 대해 즉각적인 규탄성명 발표로 대응했는데, 얼마 전 일본은 연초부터 2014년 방위백서 한글 요약본을 우리 정부에 배포하는 망동을 저질렀고 국방부는 즉각 대응으로 지탄을 받았다는 점에서, 지난해 11월 독도입도 지원센터 건립중단 결정에 이어서 또 다시 독도 수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굳건한 인식이 드러난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히고, 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진복(울릉·곽경호(칠곡)·김창규(칠곡)·안희영(예천)·정상구(청도) 위원 등이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정호(포항)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으로 독도 수호를 위한 홍보와 관심제고를 위해서는 독도 땅을 직접 밟아 보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므로 독도체험 기회제공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독도 관련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해외 현지 독도 홍보 활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5분 자유발언

“무인모텔 농어촌까지, 난립 막아야” 청소년 일탈장소 악용

박용선(비례) 의원은 1월 26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규제완화 차원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무인모텔 건립을 효율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선 의원(비례)

특히 “포항 오천읍 원동과 문덕지구의 경우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와 무인모텔, 유흥주점과 학원이 마주보고 있다”며 신분증 확인 절차도 필요 없는 “무인모텔은 각종 성범죄와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무인모텔 건립을 막기 위해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건축허가 기준강화와 함께 숙박업소 허가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강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조례 제·개정을 촉구했다.

청소년들의 무인모텔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인숙박업과 무인가숙박업을 구분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지만 자동폐기됐다.

현행 조례 등 자치법규 일제 정비 촉구

곽경호(칠곡) 의원은 경북의 조례 및 자치법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경상북도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보존 추진위원회’ 조례는 은행나무 이식이 1994년에 마무리돼 20년 전에 폐지됐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방치됐다가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 와서야 폐지되었고, ‘환경관리공사 설립 조례’는 2000년에 만들어졌지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런 기관은 찾아볼 수 없는 실체가 없는 유령 조례라고 밝혔으며,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음에도 일부 조례에는 아직 지역교육청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등 상위 법령이 삭제되거나 변경됐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곽경호 의원(칠곡)

지방자치 시대의 모든 정책의 실현은 자치 입법인 조례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자치법규가 바로 정립되어야만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한 일제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책 시급

구자근(구미) 의원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및 지난 18일 정부의 대기업 수도권 투자 유도 방안 발표에 대해 지방공단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경북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교통과 노동력이 풍부한 수도권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미 지역



구자근 의원(구미3)

에 입주 의사를 밝혔던 기업들조차 수도권으로 유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투자가 집중되면 비수도권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까지 축소될 경우 지방공단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실로 심각할 것이라 우려했다. 관교 제2테크노밸리 설립, 면세점 4곳 중 3곳을 서울 시내에 허가, 외국 관광객 숙박 부족 해결을 위한 수도권 투자 등 지금도 정부가 수도권에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앞으로 수도권 규제를 더욱 완화한다면 지역 간 격차로 사회갈등은 더욱 커져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상북도 공공체육시설 개방 촉구

조현일(경산) 의원은 도내 23개 시·군에 분포된 공공체육시설이 2014년 기준으로 약 1,730여개이며, 이 가운데 축구장,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등 많은 체육시설이 있지만 시설 관리 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어 지역별로 분포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창구가 없으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축된 강당 및 체육시설이 도내 497개 학교 중 1년 단위로 계약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124개교로 겨우 19%, 1회성으로 개방한 학교는 217개교로 4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도의회는 조례 제·개정과 함께 공공체육시설의 개방과 사용에 대한 현황을 원스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육시설예약시스템 구축’과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등 관련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현일 의원(경산3)

『안동제비원성주풀이』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촉구

김명호 의원(안동)은 팔도의 모든 성주풀이에서 ‘성주의 본이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라는 가사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며, 안동제비원성주풀이는 경북의 문화원형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 보편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은 실례임을 주장하고, 하루빨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호 의원(안동2)

제비원성주풀이야말로 지역을 초월하여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유산으로서, 국악인, 무속인 등 민간 주도로 문화축전이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제비원성주풀이의 보존·전승에 일생을 바쳐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관련 절차 이행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법률 상식 주민의 권리 찾기 공공갈등의 해결사 주민투표제도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강행한 ‘서울시무상급식지원법’에 관한 주민투표를 통해, 전국민은 무상급식논쟁과 함께 주민투표를 알게 되었다. 최근에도 삼척시가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하였고, 경상남도의 무상급식중단 및 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하여 각 주민투표를 위한 준비 움직임이 시작되는 등 지역의 뜨거운 갈등 현안마다 주민투표가 해결사처럼 등장하고 있다.



최한나 변호사
(경상북도관광공사)

주민투표는 1994년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 도입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이후 10년에 걸친 입법노력으로 2004년 「주민투표법」의 시행으로 시작되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5년 포항, 경주, 영덕의 방폐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2011년 영주시 평은면사무소 이전장소 선정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된다. 그러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처기에 부적합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주민이다. 주민의 경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경상북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7)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대의민주제와 정당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

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능력이 현저히 제한되고 있어 이러한 기관 간 불균형을 보완하는 의미도 크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복잡한 정책이슈를 양자택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토의가 부족하고, 여론조작이 용이하여, 감정적 결정을 내리게 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이루어진 주민투표는 공무원에 의한 관련개입과 불법선거, 투표과정에서 찬반단체 간의 감정적 대립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의 골만 깊게 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 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찬반진영간의 투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여론조작과 집단의 선동에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 대하고, 관련개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제도가 투쟁이 아닌 합리적 토론으로 진정한 공공갈등의 해결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경주시 보문로 446(신평동) 경상북도관광공사
☎ 054) 740-7234



제275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1. 15.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07호, 2014. 3. 24. 공포, 2014.9.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21호, 2014. 9. 25.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다.

▶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1. 15.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1. 16.
- 제안이유 : 도청소재지 이전일 이전에 신청사 건립과 정주여건 조성 및 청사관리 등 도청 이전 준비를 위하여 먼저 이전하는 직원과 파견(배치근무)되는 공무원에게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함이다.

▶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1. 15.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에 의거 향후 4년(2015년 ~ 2018년) 동안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자율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 위함이다.

▶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발의자 : 한혜련 의원 외 7인 2015. 1. 16.
- 제안이유 :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글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고유 문자인 한글과 국어의 발전 및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1. 15.
- 제안이유 : 학생야영장이 복합적 기능을 갖춘 시설 현대화로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 가능함에 따라 야영장의 명칭을 확대된 기능에 맞게 적절히 변경하고, 야영장 시설이 노후화되고 인근에 현대화된 청도·안동·상주학생야영장 시설이 있

어 야영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문경·봉화·의성학생야영장을 폐쇄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1. 15.
- 제안이유 :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 전문적 소양을 갖춘 전문경력관 정원을 배정하여 학생수련활동의 질 향상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1. 15.
- 제안이유 : 경주 양남초등학교상계분교장에 2015년도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의 아동이 없으므로 대상학교를 폐지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박태우 원장
(박태우한의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꽃가루 알러지를 가진 사람들이 콧물, 재채기 등 알러지성 비염으로 괴로움을 호소한다. 비염이란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및 코가 막히는 증상을 나타내는 코의 염증성질환이다.

비염은 크게 급성비염과 만성비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급성은 감기의 증상을 보인다.

알러지성 비염은 특정물질이 콧속으로 들어올 때, 코가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좋은 치료방법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줄이고 몸의 기초 면역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과도한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쉽게 노출되는데, 알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꽃가루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하고,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챙겨 입는 것이 좋다. 환경적요인 말고도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몸을 건강하게 해서

봄철의 불청객 알러지성비염



외부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한다. 즉, 면역을 높이는 방법이다.

한의원에서 비염치료는 코의 혈자리를 이용하여 상태를 개선시키는 침, 뜸, 무통레이저침이 있다. 약물치료로는 코와 기관지를 개선시키는 보습한약, 과립형한약, 탕약 등의 형태가 있다.

또한, 비염을 콧물의 상태에 따라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경우와 점성이 있는 누런 콧물이 나오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맑은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보습한약인 소청룡탕을 추천한다. 소청룡탕은 8가지 약물인 마황, 백작, 건강, 감초, 오미자, 계지, 세신, 반하로 구성된 처방으로서 「상한론」에서 “傷寒表不解 心下水氣 乾嘔 發熱而咳...小青龍湯 主之”라는 조문으로 소개되어 있다. 發表를 하면서도 水氣를 따뜻하게 말려주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소청룡탕은 코혈관의 과민반응과 점액의 과다 생성으로 인해서 생긴 맑은 콧물과 콧물이 기관지로 넘어가서 생긴 기침 등에 효과가 있다.

누런 콧물의 대표적인 보습한약은 형개연교탕이다. 「동의보감」에 형개연교탕은 비연(鼻淵, 누런 콧물이 코에 고인 모습)에 쓰는 처방으로 소개되며, 비염, 부비동염, 편도염, 중이염 등 국소적인 염증이 부각되었을 때 사용하는 처방이며, 피부에 생긴 염증 등에도 활용한다.

이외에도 비염에 처방되어 지는 보습한약으로는 삼소음, 갈근해기탕, 보중익기탕 등이 사용된다. 🍵

박태우한의원 / 대구시 북구 태전동 989-4번지
☎ 053) 322-3515

세계 물 산업의 메카!

경상북도

<http://council.gb.go.kr>

2015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

2015



기간_ 2015. 4. 12 ~ 17 (6일간)

장소_ 경주 화백컨벤션센터(경주 HICO)
대구 EXCO

“Water for Our Future”

규모 국가정상급 포함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연인원 4만여 명

내용 포럼 - 4개 주요과정별(주제별 · 정치적 · 지역별 · 과학기술) 논의 및 시민포럼
EXPO & Fair - 물 관련 우수 정책, 제품, 기술 등 전시

세계물위원회(WWC)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매 3년마다 개최하는 물 분야 최대 국제행사